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

A study of Social Support, Daily Hassles and Maladjustment
perceived by Adolescents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강 사 이 경 주
교 수 신 호 식
제주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부 교 수 김 호 심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Kyeong Ju, Lee

Prof. : Hyo Shick, Shin

Dept. of Practical Arts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sociate Prof. : Hyo Shim, Kim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relationship among the social support, daily hassles, and maladjustment of adolescents. Questionnaire survey method was used in this research. The sample was taken from 434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 the middle school in Kwangju. Statistical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Frequency, Percentage, Anova, and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Daily hassles was found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family support.
2. Maladjustment was found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ll social support

* 이 논문은 1997년도 전남대학교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subscales.

3. The variables significantly affecting maladjustment were marital satisfaction of mother, family support, self-esteem support, and daily hassles.

I. 서론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양한 생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일들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심리적 긴장을 겪을 수 있다. 청소년기는 생리적, 정서적, 사회심리적 변화 등을 겪는 불안정한 시기이다. 이러한 발달상의 변화가 생활속의 부적응 경험을 하는 청소년에게 더욱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정서와 행동에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다 (Compas, 1987; Johnson, 1986).

부적응을 논의할 때 주요한 생활사건 스트레스보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부적응과의 관련성이 더 높다고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일상적 스트레스는 몇 개가 동시에 나타나 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생활사건보다도 더욱 위협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Compas, Howell과 Phraes(1989)의 10-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상적 스트레스가 중요한 생활 스트레스보다 부적응에 강력한 위험요소로 작용한다는 결과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각 개인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긴장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스트레스 지각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자원과 환경적 자원을 들 수 있겠다. 아동과 청소년 연구에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로부터 개인을 방어해주는 변수로 사회적 지지(Barrera, 1981), 가족환경(Burt, Cohen & Bijorck, 1988), 긍정적인 생활사건(Siegel & Brown, 1988), 애착과 분리(Ainsworth, 1979), 대 인간의 인지적 문제 해결(Spivack & Shure, 1985) 등의 다양한 변인이 밝혀졌다. 이러한 변수 중에서 널리 연구되고 있는 환경적 자원은 사회적 지지이다. 사회적 지지는 생활 스트레스에 손상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중요한 생활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신체적, 정서적 건강과 관련되어져 있어서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Berkman, 1985; Cohen, 1988; Cohen & Wills, 1985).

사회로부터의 개인의 소외가 부적응, 자살, 정신질환, 일탈행위 등과 같은 병리적 현상을 유발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관계의 결핍 자체가 개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효과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손상효과를 완화시키는지 혹은 스트레스 수준과 관계 없이 사회적 지지가 그 자체로서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전술한 바를 통하여 청소년기의 사회적 지지 경험과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가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청소년기의 지속적인 부정적인 관계가 이후의 발달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Carnegie & Report, 1989; Newcomb & Bentler, 1988)는 점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유용성을 검증하여 사회적 지지가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와 부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와 부적응은 성이나 모의 결혼만족도와 같은 변수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신은영, 김경연, 1996; 김창기, 1992; Forehand, Lautenschlager, Faust & Grazino, 1986; Patterson, 1980; Sweringen & Cohen, 1985)를 토대로 이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와 부적응의 차이를 검증해 보며, 부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의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여 사회적 지지,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 및 부적응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부적응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의 부적응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자녀의 성별, 모의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기에 겪는 일상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초래되는 부적응을 다소 예방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청소년 뿐 아니라, 비행 청소년 가족, 빈곤 가족, 편부모 가족 등에게 부모-자녀 관계를 증진시키는 부모역할 방향과 청소년 자녀에게 건전한 발달과 복지 증진을 지원해 주는 기초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여 자아존중감이 손상되고 무력감을 느낄 때 심리적 긴장이 나타난다. 스트레스 개념은 주로 인지적 과정을 중시하는 상호작용 관점에서 스트레스를 접근하고 있으며, Lazarus와 Folkman(1991)이 스트레스 유형중에서 일상적 스트레스(daily hassles)가 긴장원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여 부적응 연구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도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관점에서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고자 한다. 즉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진 환경이나 상황에서 평가하는 일상생활의 문제거리가 해결곤란하거나 개인의 안녕상태를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과의 특정한 관계를 의미한다.

청소년기는 환경에 적응을 요하는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상황이 그 이전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접하

게 됨으로써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들의 지속적인 부적 스트레스 경험은 심각한 부적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이 시기의 스트레스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김정겸, 1987; 황정규, 1990; 김창기, 1992)를 통하여 학업성적, 교사와의 관계, 부모관계, 신체변화, 친구관계 영역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황정규(1990)는 친구와의 관계, 학업성적,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신체변화 순으로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며, 박명재(1993)는 중,고생들이 가족문제, 학교문제, 신체변화에 따른 문제 등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 요인을 학업관련, 가족관련, 친구관련, 교사관련, 신체관련 영역으로 구분짓고 이를 단일 차원으로 하여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 지수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지지와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

사회적 지지란 개인의 대인관계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긍정적인 지원으로서 스트레스와 관련지어 논의되어 왔다. 즉,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감소시켜 준다. 또한 지각된 스트레스에 덜 반응하도록 신경계 내분비선 체계를 진정, 혹은 건전한 행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스트레스 영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환경적 자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지각된 스트레스에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관해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자 한다.

청소년 자녀는 가족이나 또래, 친지, 이웃 등에게 받는 사회적 지지가 지각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부모가 청소년의 부정적인 생활변화의 영향을 완화시켜 줄 수 있으며(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 1992; Hauser, Vieyra, Jacobson, & Werthlieb, 1985), 특히 낮은 지지를 주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소녀가 부정적인 생활변화에 더욱 손상받기 쉽다(Ge, Lorenz, Conger, Elder, & Simons, 1994)고 밝혔다.

Cohen, Mermelstein, Kamark와 Hoberman(1985)은 가족 이외에도 또래에게서 받는 지지가 지각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강성희(1991)연구에서도 또래지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크게 구조적,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되는데 개인의 대인관계의 질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를 보는 기능적 측면이 지지 역할을 크게 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감소시키는 완화효과로 작용한다고 하여 이들을 중점적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은 학자마다 구성요소를 다르게 구분짓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험적 연구(Cohen & Mckay, 1984; Schaefer, Coyne & Lazarus, 1981)들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자존감 지지 등의 세 측면을 강조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애정, 격려, 수용 등을 통하여 정서적인 불만족감을 완화시켜 적용에 유익한 방식이며(Cutrona, 1986), 정보적 지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 조언 등을 통하여 스트레스 요인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움을 주므로 지각된 스트레스를 양성으로 재평가해주거나, 적절한 대처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Dubow & Tisak, 1989). 또한 자존감 지지는 자신이 타인에게 존중되고 인정받는 사람임을 지지해주므로 자존감 손상을 회복시켜 스트레스를 극복해 주는 일차적인 지지라고 하였다(Cohen & Mckay, 1984). 이렇듯 지지의 기능이 개념적으로 구별되지만 실제상황에서는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지지의 기능 차원간에 상호관련이 있다는 견해이다. 다만 유형별로 구분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임상적 실재로 전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지를 세분화시켜 지속적으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가족, 또래, 교사, 친척 등의 다양한 근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족과 또래에게서 받는 지지가 다른 근원으로부터 받는 지지보다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족은 자녀에게 지속적이고 일차적인 관계망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청소년기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대되어가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들 가족 지

지와 또래 지지가 중요한 지지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경향에 대해서는 자료가 매우 미진하므로 아동기를 포함시켜 살펴보겠다. 김명숙(1994)에 의하면 초등학교 4, 6학년 아동은 지지원 측면에서 또래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순으로 나타났고 지지 유형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자존감 지지, 정보적 지지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김미숙(1994)은 고교생 2학년생을 대상으로 자존감 지지가 다른 지지보다도 스트레스 인지를 완화시키는 강력한 자원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이 지각한 일상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완화시켜주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의 어떤 양상이 그러한 기능을 하는지를 밝혀야 한다(Thoits, 1986)는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지지의 유용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를 가족 지지, 또래 지지의 지지원 측면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자존감 지지의 지지유형 측면의 차원에서 세분화시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3.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와 부적응

부적응이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 벗어난 행동을 말하며,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해가는 가운데 여러 환경 요인들로 인해 유발된 행동적, 심리적 부적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적응 유형은 널리 이용되는 Achenbach와 Edelbrock(1983)의 자녀행동목록(Child Behavior Checklist: CBCL)과 오경자, 이혜련(1990) 연구를 기초로 사회적 위축, 불안, 우울, 과잉활동성, 공격성, 비행성의 6개 요인을 단일차원으로 구성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부적응 경향을 보면 고교생 남녀의 약 5.3%가 불안장애를 지니고 있으며, 약 2%정도가 우울 성향을 보인다(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김명정, 1983)고 밝혔다. 자살행동은 우울과 관련되어 있는데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73.1%

가 자살충동을 느낀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 흡연과 음주경험 실태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1)의 자료에 의하면 13-18세 청소년들의 흡연경험은 26.8%이며 음주경험은 중3에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고 3시기에서 낮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의 비행은 18-19세 집단에서 많이 일어난다(청소년 백서, 1991)고 하였다.

한편,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인 부적응 즉 우울과 불안(Compas, Slavin, Wager & Vannatta, 1986), 학업수행의 어려움, 비행, 약물사용(Dubow & Tisak, 1989; Rowlingen & Felner, 1988)등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Vaux와 Ruggiero(1983)의 연구에서도 14-19세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비행이나 폭력, 절도, 약물사용 등의 범죄에 높게 관련되어있음을 지적하였다. Windle(1992)의 종단적 연구에서도 역시 일상적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예언 변인이라고 하였다.

상기의 결과처럼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간에는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이 겪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4. 사회적 지지,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와 부적응

Cohen 과 Wills(1985)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에 관한 모델을 통해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두 시점을 제시하였다. 일차적으로는 스트레스 사건에서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시점이고, 이차적으로는 지각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스트레스 결과인 적응/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시점이다. 그래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요인인 잠정적 스트레스 사건으로부터 스트레스 지각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그리고 지각된 스트레스로부터 그 결과인 병리적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는 적응을 위한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관점에 의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가 신체적, 정서적 건강 및 부적응과 관련이 높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즉 사회적 지지가 적거나 없는 청소년은 부적응 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이 완화되지 못하여 더 부적응을 보일 것이다. Windle(1992)에 의하면 가족이나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게 되면 지각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비행행동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Cohen, Mermelstein, Kamark 와 Hoberman(1985)은 부적 스트레스를 지각한 이후에 물질적 지지를 제외한 자존감지지, 소속감지지, 정보적 지지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수준이 낮았고 부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한 후에는 우울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Wolchik, Sandler, Braver(1987)는 존경 지지와 정보적 지지가 사람들에게 지각된 위협과 그 중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스트레스의 부적응 영향을 줄여준다고 보고하였다.

한미현, 유안진(1996)에 의하면 부적응의 하위 영역별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과잉행동은 교사 학교영역과 부모영역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다. 불안행동은 또래 지지가, 위축행동은 또래 지지와 가정환경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으며, 공격행동은 부모영역 스트레스가, 미성숙행동은 또래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적응 및 안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부적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의 해로운 영향을 완화시켜 부적응을 억제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상의 결과는 사회적 지지를 지지원, 지지 유형 측면에서 측정하고 지각된 스트레스로부터 부적응을 완화시키는 지지의 메카니즘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영향력 정도를 다루는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K시에 소재한 4개 중학교 남녀 학생

500명과 그들의 어머니로 하였다. 대상을 선정할 때 4개 구로 고루 분포되도록 하였으며 이들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34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의 성별은 남학생이 51.8%를 차지하는 225명이었고, 여학생은 48.2%에 해당하는 209명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형제수는 2명(46.8)이 가장 많았고, 형제순위는 외동이 및 첫째(36.9%), 둘째(35.5%)가 많았다. 부의 연령은 45세-49세(42.2%), 모의 연령은 40세-44세(49.1%)가 많았으며 부모의 학력은 모두 고졸(40.6%, 50.9%)이 많이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100만원-200만원(53.2%)집단이 많았고 부의 직업은 사무직(28.8%), 자영업(23.5%)집단이 많았다. 모의 직업은 전업주부 (67.7%)가 많았으며 모의 결혼만족도를 보면 만족한 경우(59.9%)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는 류수영(1993), 이유미(1994), 한미현, 유안진(1996)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가족관련영역(5), 친구관련 영역(5), 학업관련 영역(5), 교사관련 영역(5), 신체관련 영역(3)의 총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수준은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Cronbach 값)는 .79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Dubow와 Ullman(1989), 박지원(1986), 김명숙(1994)의 척도를 참고하여 크게 지지원과 지지유형으로 구성하였다. 지지원은 가족과 또래에게서 받는 지지가 가장 중심적인 지지 근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총 10문항으로 하였다. 지지유형은 여러 연구자(Cohen & McKay, 1984; Schaefer, Coyne & Lazarus, 1981)가 사용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자존감 지지 세 측면으로 구성하였다. 총 14문항으로 이들의 신뢰도(Cronbach 값)는 가족지지 .88, 또래지지 .84, 정서적 지지 .91, 정보적 지지 .79, 자존감 지지 .87로 나타

났다.

부적응 척도는 Achenbach와 Edelbrock(1978)이 제작한 Child Behavior Checklist(CBCL)를 근거로 하여 오경자, 이해련(1990), 홍경자(1986), 김명숙(1994)의 척도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청소년의 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총 24문항이었으며, 각 문항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부적응 행동 표출정도에 따라 3점 척도(0-2점)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Cronbach 값)는 .80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자녀의 성별과 모의 결혼만족도를 포함시켰다. 모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결혼 만족 여부를 물어보는 단일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60명의 중학생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996.6.26-7.5일 사이에 중학생 남녀 50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434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Duncan검증,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의 차이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의 차이는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가족지지 영역에서만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은 집단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적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부모가 청소년의 부적 생활변화의 영향을 완화시켜 준다(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s, 1992; Hauser, Vicyra,

Jacobson, & Werlieb, 1985)는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부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가족의 영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자녀에게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부적응의 차이

<표 1>과 같이 사회적 지지의 모든 영역에서 부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족지지, 또래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자존감 지지가 낮은 집단이 부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점은 청소년기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대되는 시점으로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지를 또래로부터 받는 것이 부적응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하다. 특히 부모에게서 독립성과 의존성의 양가감정을 갖는 이 시기에 적절한 가족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도 자녀의 적응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지지 유형 측면에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자존감 지지의 지각 수준이 낮은 집단이 부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타인에게서 애정, 격려 등을 통하여 정서적 불만족감을 완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제시해 주거나, 손상된 자

<표 1>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일상적 스트레스인지 M (SD) D	부적응 M (SD) D
가족지지	상(N=133)	86.37(12.19)b	8.32(6.15)b
	중(N=180)	88.47(9.49)b	9.66(6.30)ab
	하(N=121)	91.07(9.97)a	11.06(6.50)a
	F값	6.35***	5.98**
또래지지	상(N=139)	88.47(11.19)	8.75(6.62)b
	중(N=190)	87.90(10.11)	9.57(5.97)ab
	하(N=105)	89.86(10.83)	10.93(6.62)a
	F값	1.16	3.56*
정서적지지	상(N=120)	88.81(11.39)	8.87(6.37)b
	중(N=186)	88.04(10.25)	9.34(6.23)ab
	하(N=128)	89.05(10.54)	10.55(6.53)a
	F값	0.39	3.52*
정보적지지	상(N=130)	89.24(10.64)	8.50(6.23)b
	중(N=190)	88.35(10.92)	9.81(6.25)ab
	하(N=114)	88.11(10.23)	10.65(6.56)a
	F값	0.40	3.61*
자존감지지	상(N=159)	88.47(11.35)	8.58(6.06)b
	중(N=128)	88.75(9.29)	10.01(5.97)ab
	하(N=147)	88.47(11.02)	10.46(6.93)a
	F값	0.03	3.68*

*p<.05, **p<.01, ***p<.001

아존증감을 회복시켜 주는 지지를 받게 된다면 청소년기의 부적응을 완화시켜 건전한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지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부적응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1.67, 2.01), 잔차간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와 같이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는 자녀의 성별, 가족 지지가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변인에 의해서 12%가 설명이 되었다.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가족 지지가 낮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적응은 모의 결혼만족도, 가족지지, 자존감 지지,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변인에 의해 15%가 설명이 되었다. 즉, 모의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가족 지지가 낮을수록, 자존감 지

지가 낮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부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어머니의 결혼 생활 상태가 불만족한 경우 청소년 비행 같은 부적응을 일으킨다는 결과와 일치(김선애, 1994; 최운진, 1993)하고 있어서 모의 결혼만족도가 자녀의 부적응을 일으키거나 억제해줄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둘째,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 수준이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연구(한미현, 유안진, 1996; Compas, Howell & Phares, 1989)와 일치하고 있으며, 부적응의 일상적 스트레스 경험을 완화할 수 있는 대처 기술이나 통제력 훈련이 필요함을 제시해주고 있다. 셋째, 자존감 지지와 가족 지지가 부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심리적 적응의 일차적 요소라고 지적한 결과(Cohen & McKay, 1984)와 일치하며, 가족으로 받는 지지가 다른 지지보다도 청소년의 우울, 불안, 비행, 공격성 등의 부적응을 완화해주는 예측자임을 강조한 여러 연구(Barber & Rollins, 1990; Elliott, Huizinga & Ageton, 1985; Lefkowitz & Tesing, 1984)

〈표 2〉 부적응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	부적응
자녀의 성별		-5.44(-.26)***	-.18(-.01)
모의 결혼만족도		-.15(-.01)	-1.30(-.21)***
가족지지		-.54(-.23)***	-.11(-.10)*
또래지지		-.09(-.03)	-.10(-.05)
정서적지지		-.21(-.09)	-.01(-.01)
정보적지지		-.47(-.09)	-.03(-.01)
자존감지지		-.18(-.07)	-.17(-.15)***
일상적 스트레스인지			.07(.13)**
R ²		.12	.15
F값		12.76***	25.09***

수치는 b(β)값임.

성 : 남=1, 여=0

* p<.05, ** p<.01, *** p<.001

와 일치한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은 집단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적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지지, 또래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자존감 지지가 낮은 집단이 부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부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가족의 영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가족 지지이외에 다양한 지지를 제공받는 것 또한 자녀의 적응능력을 증진할 수 있어서 지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부적응은 모의 결혼만족도, 가족지지, 자존감 지지,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결혼 생활 상태가 불만족한 경우 가족의 결속력과 정서적 유대감이 낮게 되어 자녀에게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심리적 환경임을 제시해주고 있으므로 부모의 결혼생활 적응을 위한 노력이 자녀의 부적응을 예방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급격한 생리적, 정서적, 사회 심리적 변화로 많은 일상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데,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 수준이 높으면 부적응이 높다는 결과를 통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기술이나 통제력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자존감 지지와 가족 지지가 부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자녀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자존감 지지를 제공해주고 특히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실질적인 지지를 해줌으로써 자녀가 긍정적인 자아상 및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어 적응력을 지니게 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으로 제한하여 지역 표집의 한계가 있으며, 중학생이외에 고교생, 대학생 등 다양한 청소년층을 고려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므

로 후속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 광범위하게 청소년을 고려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적응에 가족 구조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적응 척도가 다소 극단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적응을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부적응을 잘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를 개발하여 연구가 행해진다면 부적응을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광일·원호택·김이영·김명정(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I, 정신건강연구 1, 1-39.
- 김명숙(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1994).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에 있어서 사회적지지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선애(1994). 아동 및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연구: 가족요인을 중심으로. 상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김정겸(1987).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기(1992).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요인 및 적응방법에 관한 고찰.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수영(1993). 국민학교 고학년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재(1993). 중·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유형과 강도. 순천향대학교 석사논문.
- 박지원(1986). 사회적 지지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1990). 청소년 자살에 관한 설문조사보고.
- 신은영 · 김경연(1996).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 사건,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빈도,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 *대한가정학회지* 34(4), 33-47.
- 오경자 · 이해련(1990). 한국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 증후군 연구 I : 4-5세, 6-11세, 12-16세 남아 CBCL자료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33-55.
- 이유미(1994).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인지적 평가에 관한 연구-광주직할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최운진(1993).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 개발원.
- 한미현 · 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82-194.
- 홍경자(1985).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양상 도형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Achenbach, T.M. & Edelbrock, C.(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 Barber, B.K. & Rollins, B.C.(1990).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Lanham, M.D.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Berkman, L.F.(1985). The relationship of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to morbidity and mortality. In S. Cohen & S.L. Syme(Eds.), *Social support and Health*(pp.241-262). New York : Academic Press.
- Burt, C.E. Cohen, S., & Bjorck, J.P.(1988). Life stress and adjustment : Effects of life events experienced by you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3(4), 583-592.
- Cohen, S. & McKay, G.(1983). Social support, stress and buffering hypothesis. In Baum, A., Singer, J.E., & Taylor, S.E.(Eds.).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 4, 253-267.
- Cohen, S., Mermelstein, R., Kamarck, T., & Hoberman, H.M.(1985). Measuring the functional components of support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73-94. Dordrecht, The Netherlands : Martinus-Nijhoff.
- Cohen, S., & Wills, T.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social Bulletin* 98, 310-357.
- Compas, B. E.(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 393-403.
- Compas, B.E., Howell, D.C., & Phares, V.(1989) Perspectives on child behavior problems : Comparisons of children's self-reports with parent and teacher repor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 68-71.
- Compas, B.E., Slavin, L.A., Wagner, B.M., & Vannatta, K.(1986). Relationship of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 with psychological dysfunc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5, 205-221.
- Cutrona, C.E.(1986). Behavioral manifestations of social support : A micro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 201-208.
- DuBois, D. L., Felner, R.D., Brand, S., Adan, A.M., & Evans, E.G.(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Dubow, E.F., & Tisak, J.(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Dubow, E.F., & Ullman, D.G.(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Elliott, D.S., Huizinga, D., & Ageton, S.S.(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Beverly Hills CA : Sage.
- Forehand, R., Lautenschlager, G.J., Faust, J. & Graziano, W.G.(1986). Parent perceptions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in clinic-referred children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maternal depressive mood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4, 73-75.
- Ge, X., Lorenz, F.O., Conger, R.D., Elder, G.H., & Simons, R.L.(1994). Trajectories of stressful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4), 467-483.
- Hauser, S.T., Vieyra, M.A.B., Jacobson, A.M., & Wertlieb, D.(1985).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adolescence : Views from the famil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5, 81-100.
- Johnson, J.H.(1986). Life events as stresso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Beverly Hills, CA : Sage.
- Lefkowitz, M.M. & Tesing, E.(1984). Rejection and depression : Prospective and contemporaneous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776-785.
- Newcomb, M.D., & Bentler, P.M.(1988). Impact of adolescent drug use and social support on problems of young adults :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64-75.
- Patterson, G.R.(1980). Mothers : The unacknowledged victim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5, (5, serial No. 186).
- Rowlison, R.T. & Felner, R.D.(1988).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432-444.
- Schaefer, C., Coyne, J.C., & Lazarus, R.S.(1981). The health-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381-406.
- Sweringen, E.M., & Cohen, L.C.(1985).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distress : A prospective study of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45-1054.
- Thoits, P.A.(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16-423.
- Vaux, A. & Ruggiero, M.(1983). Stressful life change and delinquent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2), 169-183.
- Windle, M.(1992).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buffering for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522-530.
- Wolchik, S.A., Sandler, I.N., & Braver, S.L.(1987). Social support : Its assessment and relation to children's adjustment. In N. Eisenberg(Ed.). *Contemporary topic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319-348, N.Y. : Wiley.